



▲박순업씨(오른쪽)와 둘째딸 김영란씨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미확인 屍身 54구...유가족들 항의”

大韓항공 靑慘事 미국내 소송 모색

【뉴욕】 9개월전 대한항공기 靑참사로 남편을 잃은 박순업씨(67·경기도 안산)씨는 지난 3월 25일 1차 사고 청문회에서 사고 원인이 조종사의 실수와 靑 관제 시설의 결함 가능성이 제기돼 미국내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자 법정투쟁을 위해 3일 뉴욕을 방문, 맨해튼 김동민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박씨는 대한항공측의 당시 사고수습과 관련, 불만과 문제

점, 미국측의 무성의를 성토했다. 박씨는 아직 김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사건수임을 의뢰하지는 않았다.

박씨는 “무려 6개월에 걸친 유전자검사서서 남편의 시신을 어떻게 찾을 수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작년 TWA기 추락 사고에서는 대서양 사고해역을 샅샅이 뒤져 시신 확인을 1개월만에 끝내는 등 수습을 위해 적극적이었던 미국이 靑 사고에서만은

무성의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이는 대한항공의 사고 수습능력의 절대적 부족과 열의 부족 그리고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변호사는 “대한항공이나 한국정부가 한국의 죽은 사람에 대한 전통적인 관습을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인식시켰다면 미확인 시신이 54구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종일기자

1998년 4월 6일 (월요일) 조선일보 한인사회·메트로 섹션 <2>